

‘조훈현 배출’ 영암군, 바둑팀 ‘마한의 심장 영암’ 창단

한해원 감독 지휘봉...28일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출전

안성준·설현준·최철환·박종훈·엄동건으로 선수단 구성

조훈현 국수를 배출한 ‘바둑의 본향’ 전남 영암군이 바둑팀을 창단했다. 영암군은 최근 군청에서 바둑팀 ‘마한의 심장 영암’ 발대식을 갖고 바둑리그 참가를 선언했다고 25일 밝혔다.

‘마한의 심장 영암’ 팀은 한해원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 한 감독은 ‘2021-2022 KB 바둑리그 EDGC’ 서울 ‘YOU WHO’ 팀을 이끈 경력이 있다.

선수는 1지명 안성준 9단, 2지명 설현준 8단, 3지명 최철환 9단, 4지명 박종훈 7단, 5지명 엄동건 2단으로 구성돼 있다.

‘마한의 심장 영암’ 팀은 오는 한국기원의 주요 바둑 기전 중 하나로 오는 28일부터 진행되는 ‘KB국민은행 바둑리그’에 지역 이름을 걸고 출전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은 조훈현 9단을 배출하고, 해마다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를



여는 바둑의 본향'이라면서 "이 이름에 걸맞게 마한의 심장 영암 팀이 KB 바둑리그에서 선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함평군,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평가회 실시

함평군이 지난 20일 함평군치유농업연구회 회원 10여 명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치유 농장 기반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공모사업으로 대동면 월인 천강나비항차원농장(김정석 대표)이 선정돼 올 한 해 동안 진행됐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농장 소개와 사업추진 결과 발표를 했으며 참여자들은 ▲내 몸지기 차 명상 치유 ▲싱잉볼 치유 체험프로그램 ▲프로그램 참여 전·후 스트레스 혈관지수 측정 등 여러 체험활동에 참여했다.

평가회에 참석한 한 회원은 “치유프로그램 참여 후 스트레스 지수가 감소되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문정모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도 함평군의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효과 확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신안군,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농어촌 상생 위한 간담회 개최

신안군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에 있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영환)과의 농어촌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2004년에 설립되어 기업과 농어업 간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협력 사례의 발굴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여 공정거래 관계 조성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신안군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재단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안군과 대·중소기업협

력재단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하여, 깊이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ESG 경영 등 신안군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 성과와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내년 상반기에 업

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안군에서 포럼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그동안 신안군에서 추진해 온 많은 정책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사업 목표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앞으로 재단과 신안군이 긴밀히 협력하여 소멸 위기의 농어촌을 살리고, 농어촌과 기업이 상생하는 우수 사례로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목포시 4차산업 교육 중심 ‘AI 메타버스 센터’ 인기

목포시가 청년스마트도시 조성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10월 (구)청호중학교에 구축한 ‘AI 메타버스 센터’가 청년과 주민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AI 메타버스 센터’는 지난 10월 11일 ‘인공지능(AI) 융합서비스 개발자 과정’을 시작으로 무료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 수강생들은 내년 3월경 교육을 수료하고 취·창업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AI 메타버스 센터’는 오는 27일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개발자과정’을 개강할 예정이다. 오는 26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장비 공유·개발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받아 진행 중이다. 목포시 뿐 아니라 인근 지역 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 준 결과 12월 중순 현재 약 360명의 학생들이 체험에 참여했다.

체험 프로그램은 헤드셋을 활용한 가상현실(VR) 체험, 태블릿을 활용한 가상캐릭터 만들기, 확장현실(XR)을 활용한 운동/모험/영상 체험, 크로마키 영상 촬영, 인공지능 교육, 로봇 자율주행 실습 등이 있으며, 참여자는 직접 만져보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4차산업을 주도할 신기술들을 배우게 된다.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축제장이나 홍보부스에서 한두 번 만져본 게 전부였는데, 전문적인 장비와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 “4차산업에 관심이 생기는 좋은 기회가 됐다”, “미래로 한 발짝 다가간 기분이었다”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목포=기동취재본부



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 주민인식증진 선진지 견학

무안군은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2단계 확대 추진중 1단계 지역의 세계유산 활용 사례를 통한 주민인식 증진을 위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이번 견학은 지난 13일 현경면 등 4개마을의 어촌계장 등 마을주민 35명과 세계유산 추진단이 함께 1단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창지역 어업인들을 만나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시 문제점, 추진 후 갯벌의 보전과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을 진행했다.

무안군은 지난 11월 29일까지 마을이장 회의시 2단계 확대 권고안에 따라 함평면과 탄도만 일원인 4개면(현경, 해제, 망운, 운남)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앞으로 2024년 1월부터 탄도만 합해만 내 4개면 27개 어촌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어촌계장들의 우려와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 세계유산 추진사항 및 등재의 필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무안=이기성기자

영광군, 전라남도 주관 산림행정 평가 모두 휩쓸어

탄소중립 나무심기 대상, 산림행정종합·산불예방대응 평가 최우수상 등 산림행정 평가 3개 부문 수상



영광군은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2023년 탄소중립 나무심기 평가에서 대상, 산림행정 종합평가와 산불예방·대응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탄소중립 나무심기 평가는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며, 산림행정 종합평가는 3년 연속 수상이다. 산불예방·대응 평가는

올해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산림행정 종합평가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평가하였다.

대상을 수상한 탄소중립 나무심기 평가는 나무심기 실적, 숲조성 참여 등 조성분야, 숲관리, 예산 활용도 등 관리분야, 우수사례 및 정책협력도 등 총 3개 분야 9개 항목 17개 지표에 대해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다.

영광=서희권기자

산림행정 종합평가는 한 해 동안 침입종 제거 및 산사태 예방 등 산림자원 분야와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전문인력인 육성 등 산림휴양 분야, 산림관련 인력 및 예산확보,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공통분야 총 3개 분야 18개 항목의 지표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산불예방대응 평가는 산불방지 과태료 부과, 불법소각 기동 단속 등 산불예방 분야, 산불방지 기동 실적 등 산불홍보 분야, 지휘차량 출동 실적, 산불진화 통합훈련 등 산불대응 분야,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 우수사례 등 4개 분야 13개 항목 지표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산림분야 3개 부문에서 대상, 최우수기관 선정은 영광군과 군민들이 함께 숲을 가꾸고 조성해 나간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산림복지 향상과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산림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